

# 부산시, 140여개 기관과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제 활성화

지역기업 판로 위축 문제 해결  
구조적 한계 극복해 선순환 도모  
지역 인재·건설자재 등 범위 확대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부산 소재 공공기관과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등 총 140여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



부산시가 총 140여개 기관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하고, 그동안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

할을 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매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과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기업 거래 비중 확대 ▲구매 정보 투명 공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 구체적 실천을 공동 추진한다.

또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원칙 ▲지역제한 경쟁입찰 사업 100% 지역업체 선정 ▲건설 하도급률을 기존 56.7%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해 지역인재 고용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단순 소모품 구매부터 인재 채용, 대형 건설 자재, 전문 용역까지 '부산 우선구매' 원칙을 전 영역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지역

상품 구매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 2조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구매 실적 점검 ▲우수 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 공 등 정책 환류 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부산 지역 우수 기업과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총 20개의 홍보·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실천 동력이고, 지역 상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이라며 "140개 기관의 결속과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특별한 위기에는 특별한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상공회의소

#### 해수부 이전 후 첫 공식 예방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회장단 16명은 9일 오후 4시 30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김성범 장관직무대행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북극항로추진본부장 등 해수부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해수부와 지역 상공계의 첫 공식 만남이다. 부산상의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을 축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 포항시

#### 이강덕 시장, 12년 시정 마무리

포항시는 지난 9일 민선 6·7·8기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온 이강덕 시장의 퇴임 행사를 열고 12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했다.

이강덕 시장은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기치로 세 차례에 걸쳐 시정을 이끌며 도시 전반의 변화와 성장을 추진해 왔다. 이날 행사는 그간의 시정 운영을 정리하고 전 직원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화동 대강홀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퇴임 기념 영상과 기념패·공로패 전달을 통해 12년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

#### 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국내외 개별 여행객의 지역 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일부터 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 e누리 관광상품은 도내 22개 시·군의 유료 관광시설 입장권과 관광 숙박시설 숙박권, 카페와 체험시설 이용권 등 각종 관광상품 가운데 2개 이상을 결합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관광 패키지다.

판매 개시를 기념해 2월 27일까지 18일간 경북 e누리 관광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 상품 3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김진곤 기자

## 부산시, '만덕~센텀' 구간 30분 단축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총연장 9.62km 왕복 4차로 터널  
국내 첫 전 차량 통행 지하도로

부산시는 10일 자정을 기해 부산 내 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 만덕IC에서 개통식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전재수·김미애·박성훈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장, 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로는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잇는 총연장 9.62km 왕복 4차로 터널로, 국내 첫 전차량 통행 가능 도심도 지하도로다. 지하 40m 이상 깊이에 건설돼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 교통축을 형성한다.

첨단환기·배수·화재안전시스템이 적용됐으며 7년간 공사 과정에서 지반 안정화, 초정밀 굴착 기술,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등 최신 공법이 동원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입구. /부산시

이 도로는 2001년 '부산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 수립 이후 25년 만에 마지막 구간을 완성하는 연결고리다.

개통으로 만덕에서 센텀까지 기존 41.8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연간 통행 비용 648억원 절감, 생산 유발 효과 1조 2332억원, 고용 창출 9599명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통으로 총렬대로와 수영강변대로의 만성적 정체가 완화되고, 교통 효율성 향상은 도심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경북도, 청년농에 최대 10년 스마트팜 임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사업 선정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사업에 상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교육부터 실증, 생산, 정착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 주기 인프라를 완성하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스마트농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생산·연계·가공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한 첨단 농업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에는 시설 건립 인허가 간소화와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수의계약, 20년 장기 임대, 연구시설 축조 등 파격적인 특례가 적용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스마트농업지구. /경북도

선정된 상주시는 낙동면 신상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창업단지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배출되는 50여 명의 수료생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단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구축

남영양농협과 '맞손'

영양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남영양농협(조합장 박명술)과 함께 농촌 기본소득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6년 2월 말 지급 예정인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농촌 기본소득 사용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사업을 공

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사업은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사회적 기부 및 지역 환원 활동,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의 안정적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교류 확대 등이다.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상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한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과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사천시, '녹도~신도' 잇는 생태탐방로 조성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착공

사천시가 녹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해상 생태탐방로 조성에 본격 나섰다.

사천시는 지난 9일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광을 품은 해상 생태탐방로 조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동식 사천시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지역 주요 인사, 관계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무사고 공사를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활용해 녹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보행 중심 해상 연도교를 조성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186억원이 투입된다. 현수보도교 430m와 접속도로 252m를 포함해 총연장 682m, 폭 1.5~2.0m 규모로 만들어진다.

430m 길이의 현수보도교는 바다위를 가로지르는 체험형 보행시설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주시

#### 빛누리정원에 무궁화 동산 조성

경주시는 황성공원 빛누리정원 일원에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한 무궁화 동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나라꽃 무궁화를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주시는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빛누리정원 내에 무궁화 5198본을 식재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